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양 현 아 지 음

●●제1부 한국 가족법이라는 역사적 텍스트 | 1. 한국 가족법에 대한 복합적 접근 2. 포스트식민 페미니즘 법학의 추구 ●●제2부 식민주의 유산과 한국의 '관습' | 3. 식민지시기 가족법의 '관습' 문제 I: 시간성의 실종을 중심으로 4. 식민지시기 가족법의 '관습' 문제 II: 가장제도의 착종을 중심으로 5. 조선시대 '가족'의 정치학 ●●제3부 현대 한국 가족법에서 전통과 근대성 | 6. 가족법 제정과 '전통'의 각인 7. 평등의 하늘, 역사의 땅: 1960~80년대 가족법 개정운동 8. 호주제도 폐지, 그 산을 옮기다 ●●제4부 한국 가족법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었(었)나 | 9. 친/가족제도에서 어머니는 어디에 있었(었)나 10. 가족재산제도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었(었)나 11. 2005년 가족법 개정의 방향 읽기 12. 맺음말 그리고 여는 말



2005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이었지만, 그 결정문에 나타난 페미니즘은 역사와 전통, 관습 문제를 새롭게 보는 시대인식의 방법론으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이 책은 여성 차별의 협소한 지평을 넘어서는 역사읽기 방법론으로서 포스트구조주의적 젠더 분석을 추구한다. 분쟁해결의 도구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서 이 책에서 법문은 한국의 가족질서를 보여주는 문서자료이자 한국의 근대에 대한 역사기록이며,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살아온 상징적 공간이다.

한국 가족법에서 여성의 주체성은 조선시대와 식민지시기, 현대한국의 이곳저곳에 흩뿌려져 있고, 통합되기 어려운 여러 원리가 그녀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시대착오적 정체성이 조화를 찾을 때 한국 사회와 가족의 구조변동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페미니즘은 역사 변혁의 '큰 지혜'로 다가온다.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양현아 지음

창비

값 38,000원



9 788936 413279
ISBN 978-89-364-1327-9

서남동양학술총서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양현아 지음

● 제1부 한국 가족법이라는 역사적 텍스트 | 1. 한국 가족법에 대한 복합적 접근 2. 포스트식민 페미니즘 법학의 추구 ● 제2부 식민주의 유산과 한국의 '관습' | 3. 식민지시기 가족법의 '관습' 문제 I: 시간성의 실종을 중심으로 4. 식민지시기 가족법의 '관습' 문제 II: 가부장제도의 착종을 중심으로 5. 조선시대 '가족'의 정치학 ● 제3부 현대 한국 가족법에서 전통과 근대성 | 6. 가족법 제정과 '전통'의 각인 7. 평등의 하늘, 역사의 땅: 1960~80년대 가족법 개정운동 8. 호주제도 폐지, 그 산을 옮기다 ● 제4부 한국 가족법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었(었)나 | 9. 친/가족제도에서 어머니는 어디에 있었(었)나 10. 가족재산제도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었(었)나 11. 2005년 가족법 개정의 방향 읽기 12. 맺음말 그리고 여는 말

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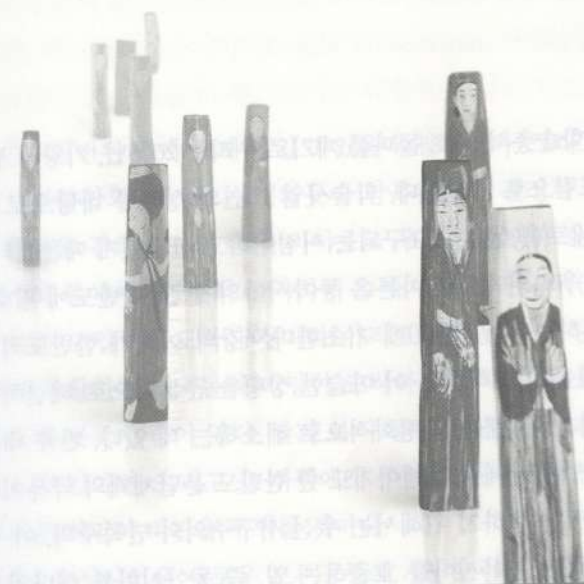
Changbi Publishers

양현아 梁鉉娥

1960년생. 서울대에서 사회학, 가정관리학(가족학 전공)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뉴스쿨(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공분야 이외에도 법학, 한국학, 미학과 제3세계 문화연구 등에 발을 들여놓아 학제간 연구를 추구하게 되었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남북한공동기소단과 2003년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 참여하였고, 한국법사회학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에서 활동해왔다.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포스트식민 여성주의 법학, 피해자 연구, 과거청산 방법론, 역사에 기반한 사회이론의 구성 등에 연구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위하여』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와 『군대와 성평등』(편저) 『군대를 다시 읽는다 2』 『서울대 명품 강의 2』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IV—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이상 공저) 등이 있다.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양현아 지음

창비
양현아 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서남동양학술총서 간행사 | 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_2

책머리에_4

제1부 한국 가족법이라는 역사적 텍스트_21

제1장 한국 가족법에 대한 복합적 접근_23

1. 왜 한국 가족법을 연구하는가?_24

(1) 가족법에 제도화된 가부장제_24

(2) 가족의 자연스러움과 정의의 망각_27

2. 한국 가족법의 의미_34

(1) 근대성과 전통, 식민주의의 자리_34

(2) 젠더 생산의 정교한 기제, 가족제도_38

(3) 가족정책의 기초, 한국 가족법_43

(4) 서양 가족법과의 차이_47

제2장 포스트식민 페미니즘 법학의 추구_51

1. 여는 말_51

2. 미국 페미니즘 법학의 논증_52

(1) 역사적 전개_52

(2) 성별 평등기준을 정립한 주요 판례_55

3. 평등기준과 여성의 차이론_74

(1) 평등과 차이 기준의 역동성_74

(2) 여성의 차이론: 맥키넨과 코넬의 논쟁_76

4. 포스트구조주의의 젠더 인식_83

5. 포스트/식민주의와 한국 가족법_88

(1) 포스트식민 페미니즘_89

(2) 포스트/식민 페미니즘 법학의 필요성_92

6. 이 책의 구성과 방법론_94

제2부 식민주의 유산과 한국의 '관습'_99

제3장 식민지시기 가족법의 '관습' 문제 I:

시간성의 실종을 중심으로_101

1. 문제제기: 왜 식민지시기 '관습'이 중요한가_101

2. 식민지성을 바라보는 시각_105

(1) 전통왜곡론 대 전통생산론_106

(2) 법인류학과 '전통'구성론_109

3. 식민지 가족법의 '관습'의 원천_112

(1) 조선민사령 제11조_112

(2) 관습조사의 태도_114

(3) 관습 범위의 산재성_120

4. '관습'문법의 시간성_124

(1) 조선의 재산상속 '관습'이라는 것_124

(2) 재산상속 판례에 나타나는 '관습'어법_128

5. 맺음말: 왜곡된 전통론과 탈식민주의 문제의식_138

제4장 식민지시기 가족법의 '관습' 문제 II:

가장제도의 착종을 중심으로_141

1. 문제제기_141

2. 일본의 가제도와 조선의 가족제도_143

(1) '가'의 고안_143

(2) 성과 씨, 양자제도_146

3. '가'의 관점에서 본 조선의 가족_159

(1) 세 종류의 상속제도라는 틀_159

(2) 제사계승자와 호주 지위의 착종_163

4. 맺음말: 식민지 '관습' 문제와 젠더질서의 재구성_173

제5장 조선시대 '가족'의 정치학_177

1.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맥락_179

2. 종법원리의 명확화_184

(1) 제사의 성격_185

(2) 제사제승제도와 그 실제_188

(3) 장자상속제도의 구체책으로서의 양자_191

(4) 족보와 혈족조직_196

(5) 가계구성의 핵심인 혼인_202

(6) 종법제에 대한 위협인 여성의 재혼_207

(7) 재산상속의 변화_212

3. 맺음말: 현대 가족의 '전통'과 조선시대의 가족제도_220

제3부 현대 한국 가족법에서 전통과 근대성_227

제6장 가족법 제정과 '전통'의 각인_229

1. 식민 유제의 연속_230

2. 민법 중 가족법 제정의 절차와 원칙_237

(1) 입법절차_237

(2) 입법방침_239

3. 전통의 재각인: 동성동본 금혼규정_258

제7장 평등의 하늘, 역사의 땅:

1960~80년대 가족법 개정운동_273

1. 여는 말_273

2. 1962년의 개정_274

3. 1977년의 개정_277

(1) 법개정 주장과 반대의 목소리_278

(2) 국가의 무관심과 침묵_282

4. 1989년의 개정_289

(1) 논리가 아닌 힘의 승부_290

(2) 1987년이라는 전환점_294

(3) 호주제도의 허와 실_298

(4) 상징적 이익 대 실질적 이익_303

5. 맺음말: 전통과 근대성의 이분법에 서서_306

제8장 호주제도 폐지, 그 산을 옮기다_312

1. 여는 말_312

2. 호주제 폐지운동의 전면성_313

(1) 시민사회와 '호폐모'—싸이버 운동_314

(2) 법률가의 역할_317

(3) 국가의 시각 변화_319

(4) '전통'의 수호자, 유림_322

3. 2005년 개정의 주요 사항_325

4.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본 호주제 폐지의 논증_327

(1) 시작 단계, 위헌법률심판 제청_328

(2)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논거_331

(3) 호주제도의 전통성과 식민지성의 미규명_346

5. 맺음말: 호주제 폐지의 페미니즘_353

제4부 한국 가족법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었)나_359

제9장 친/가족제도에서 어머니는 어디에 있(었)나_361

1. 여성으로서 가족법을 읽는다는 것_362

2. 부계계승 가족제도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_365

3. 혈족과 여성의 계통_370

- (1) 모계혈족이라는 것_371
- (2) 여계혈족이라는 것_378
- (3) 처계라는 것_380
- 4. 누가 기혼여성의 친족인가_382
- 5. 호주제도의 젠더정치_386
 - (1) 호주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인가_386
 - (2) 호주제도의 젠더논리_389
 - (3) 호주제도의 국민 생산_398
- 6. 부성제도 속의 모성_401
 - (1) 누구에게 속하는 자녀인가_401
 - (2) 친생자의 논리_402
 - (3) 친권의 논리_408
- 7. 맺음말_410

제10장 가족재산제도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었)나_413

- 1. 현행 부부재산제도에서 처의 취약함_414
 - (1) 있고도 없는 부부간 계약관계_414
 - (2) 부부간 계약취소권의 함의_417
 - (3) 부부재산제도의 실상과 허상_419
- 2.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_426
 - (1)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_426
 - (2) 여성의 '기여'의 성격_435
- 3. 부부재산제도의 대안_442
 - (1) 2006년 개정안의 특징_442
 - (2) 균등분할의 논란_449
 - (3) 기타 중요 쟁점_451
- 4. 재산상속에서의 여성_455

- (1) 여성의 법정상속분_455
- (2) 상속인 그리고 피상속인으로서의 처_456
- (3) 상속인으로서의 딸_459
- (4) 유류분, 재산과 부양에 대한 기여분_460
- 5. 맺음말_463

제11장 2005년 가족법 개정의 방향 읽기_469

- 1. 가제도 폐지와 개인성의 대두_469
 - (1) 가제도의 폐지_469
 - (2) '가족' 규정의 개정_472
 - (3) 자녀의 성과 본 규정 개정_476
- 2.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의 증가_483
 - (1)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_484
 - (2) 친양자제도 마련_492
 - (3) 친생부인의 소_497
- 3. 기타_500
 - (1) 금혼범위의 조정_500
 - (2)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규정 삭제_502
- 4. 새로운 신분등록제: 개인별 편제인가_504
 - (1) 신분등록제의 대안_504
 - (2)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_507
 - (3) 평가_512
- 5. 맺음말: 한국 가족법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었)나_514

제12장 맺음말 그리고 여는 말_521

참고문헌_535

찾아보기_567